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호 [루게 제2204호]

주체 102
(2013). 1

1

화요일

음력 11. 20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정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천만년
높이 받들어 모시렵니다



신년 김정은

친애하는 동지들!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사랑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그리운 동포형제 여러분!

우리는 조국력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빛나게 아로 새겨진 2012년을 보내고 원대한 포부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새해 2013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먼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환결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에 대한 열망과 기대속에 새해를 맞이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속에 2012년을 맞이하였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을 따라 결연히 일떠섰으며 당의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었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옥같은 총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 온갖 지성을 다 바쳐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가장 숭엄하게 꾸리고 만수대안덕과 여러 단위에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었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면서 당과 한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언제나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온 나라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중요정치행사와 지난해에 우리가 맞고 보낸 날과 달들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이 꿋꿋해야 꿋꿋수 없는 혈연적 뉴대로 다져진 감동깊은 나날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조국청사에 찬연히 빛날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로 과학기술위성 제작과 발사에 성공한것은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대경사이며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선은 결집하면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특대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을 통하여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그 어떤 강

적도 타승할수 있는 우리 식의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적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와 런이어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건인불발의 의지와 백철불굴의 투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천발전소와 단천항을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 기간공업부문의 중요생산기지를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훌륭히 개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였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양양된 애국적열의에 떠받들려 평양시에 창건거리와 룡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전국도처에 인민들의 부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수없이 꾸러져 조국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때 대한 법령에 의하여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우리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조국의 영예를 떨치었으며 혁명적예술인들은 참신하고 진취적인 예술활동을 벌려 사회에 약동하는 기상을 펼치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습니다.

(2 면 으 로 계 속)

신년경은사

(1 면 에서 계속)

지난해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기때문입니다. 지난해의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과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에 떨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정확한 령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고결한 총정과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나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해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인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2013년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우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이 있고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수령님의 위대한 전승업적이 있어 우리 인민의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으며 무궁변영할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습니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으로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은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새 세기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주체적인 실용위성을 제작발사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친 그 기세로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경제사업은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잘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이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석탄, 전력, 금속, 철도 운수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특히 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

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입니다.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 자재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세포동판개간전투장으로 양악 달려간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은 올해 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마련해놓으신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중산경제를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이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합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현행계획과 전망적인 단계별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대로 완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활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입니다.

우리는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강화하는데로 지향시키며 민심을 잘 알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당백》구호를 제시하신 50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싸움준비완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하

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혁명적령군체제와 군풍을 확고히 세우고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며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실천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침략자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선불질을 한다면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동적위군 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더욱 강화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자기 향토를 사수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군사전략사상을 실현해 나갈수 있는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백두산혁명강군의 병기창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진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만들어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닦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어나가는 일군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참된 일군입니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로서 당정책관철에서 정책적대를 바로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올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 혁신적양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을 1970년대처럼 화선식으로 전환시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입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끓는 심장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단체조직들은 자기 조직의 특성에 맞게 동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동맹

원들을 올해의 총돌격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창조와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입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입니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입니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것입니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림정을 서서 전면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봉족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조성되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습니다.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자주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습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 공화국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앞에는 더 밝고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우리 인민이 나아가는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해를 맞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축하하시고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태양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우주에 닿은 사회주의조국땅에 희망찬 새해 주제 102(2013)년이 밝아왔다.

천만군민은 가장 고결한 충정과 열화같은 인민사랑, 미래사랑으로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려주시며 사회주의조선의 백승의 활로를 열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새해를 맞이하는 조국땅 방방곡곡에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태양의 위업을 천만년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양양된 열의와 신념의 맹세가 활화산처럼 분출되는 속에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가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인과 함께 공연장소에 도착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홀에 들어서시자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불타는 소원을 담아 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며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와 부인께서는 뜨거운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관부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고 화기에애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였다.

1월 1일 정각 0시, 송년의 마지막 한 초가 주제102(2013)년의 첫 시각으로 이어졌다.

순간 희망찬 새해를 경축하는 장쾌한

축포가 평양의 하늘가에 환희롭게 터져 오르고 제야의 종소리가 조국강산에 울려 퍼졌다.

백두산대국의 힘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새해를 맞이한 크나큰 감격과 기쁨이 장내에 뜨겁게 끓어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경축의 불보라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넘쳐 열광의 박수갈채를 던지는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외국손님들과 새해의 축배잔을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인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장내는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전체 참가자들은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해를 반만년민족사의 특대사변, 전인민적대경사로 빛내여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따라 나아가는 천만군민에게 김정일에국주의로 충만된 백년대계의 전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부인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면서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2013년을 맞이하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축하하시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부부 일군들, 과학자, 연구사들,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내 근로

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부부들과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손님들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의 주제적문제정책을 높이 받들고 참신하고 진취적인 예술활동으로 온 나라에 약동하는 기상을 펼쳐며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해진군을 선도해온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 위대한 군민을 칭송하는 시대의 송가, 승리의 행진곡을 새롭고 특색있고 형상하여 환희로운 신년경축무대에 펼쳐놓았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은 장내에 주제의 대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제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누리에 떨치며 온 세계 앞서나가는 김정은시대의 필승의 기상이 끓어치는 무대에는 여성중창 《빛나는 조국》, 경음악과 노래 《설날아 내려라》, 경음악과 노래연곡 《장군님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여성독창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한평생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걸으시며 이 땅우에 불멸의 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 선군조선의 강성부흥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를 걸어왔고 아버지장군님을 따라 세기적변혁을 창조하며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온 태양조선의 성스러운 100년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우리 인민이 조선로동당과 한피줄을 잇고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승승장구하여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여성중창 《인민은 일편단심》, 경음악 《단숨에》가 무대에 펼쳐졌다.

력사상 처음으로 붉은 조선로동당기폭에 근로인민대중의 모습을 새겨주고 세기를 이어 인민의 운명을 빛내여주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질 때마다 장내는 뜨거운 격정에 젖어들었다.

무궁변영할 선군조선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관람자들은 우리의 장군님을 곧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며 우주에 닿은 조국의 국력은 또 한분의 백두령장의 기상이고 담력임을 확신하였다.

이 나라 천만자식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며 인민의 리상을 꽃피워 사회주의부귀영华的 대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세계가 펼쳐진 무대에 여성3중창 《노들강변》, 경음악과 노래연곡 《세계명곡목욕》이 려이어 울랐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우리 식으로 이 땅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애국의 의지가 장내에 세차게 끓어

올랐다. 공연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무대에 오른 여성중창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6.15》,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할 겨레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하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광스러운 천만년사가 확고히 담보되어 있음을 철리로 새겨준 공연은 종곡 《설날아 내려라》로 끝났다.

태양민족의 낮이고 숨결인 김정일에국주의를 피뎌는 심장에 간직한 조선로동당의 제일전우, 제일동지가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새해에도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나갈 군민의 철석같은 신념을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들어잡았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여성연주자들과 가수들의 열정과 랑만에 넘친 세련된 예술적형상과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어울려진 공연열기,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운 장중하고 풍만한 울림, 화려한 무대장치와 특색있는 조명 등 황홀한 예술의 세계에 관람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일심의 대하를 이룬 장내는 세찬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었다.

본사기자





축복의 새해, 희망의 2013년

새해 2013년의 첫 아침이 밝아 왔다. 기쁨의 새해, 희망의 새해를 맞는 온 나라 가정의 창가마다, 거리마다에 웃음이 넘치고 랑만과 회열이 차넘치고 있다. 새해의 첫 기쁨에서 사람들은 지나온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 보며 밝아온 조국의 새해, 자신들의 한해를 낙관하고 있다. 어제를 보면 오늘과 래일을 알게 되는 법이다. 2012년은 공화국에 있어서 격동과 사변, 기적과 환희로 충만된 있을수 없는 력사의 한해였다. 태양절,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명절,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주제100년사를 빛나게 장식한 2012년이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어깨걸고 팔을 끼고 열화같은 애국헌신과 애국충정으로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조선의 무궁무진한 힘과 불굴의 기상을 떨쳤다. 지난해에 조선반도와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정치, 군사, 경제적압살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고 집요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자주적존엄은 절대로 건드릴수 없었다. 지난해를 자랑차게 장식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로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할바, 자기에 필요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한것은 추호의 동요나 양보가 없이 하고야마는 자주적존엄의 파시였다. 실제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와 발사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것이 100% 국산화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인명하심것처럼 민족의 존엄을 결고 단행한것이며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주주리용권리를 만방에 시위한 장엄한 선언, 나라의 종합적국력을 과시한 력사적장거이다. 자주이자 선군이고 선군이자 정의이고 진리이다. 지난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도전들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쳤다. 정초에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

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시찰로부터 애국헌신의 첫 자욱을 옮기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온 한해 전선을 집뜨락으로 여기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들로부터 철거너머 동부전선의 부대들과 초소들, 동해안전방려도의 방어대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하늘, 땅, 바다의 초소들을 총정무진하시며 조국의 안전과 강성국가건설의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셨다. 우리의 령도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는 그이의 명령으로 조국수호의 총집마다는 명철의 기세로 서리발쳤고 반공화국호전세력의 도발책동은 산산이 부서졌다. 온 한해 각 군중, 병중부대들을 끊임없이 시찰하시며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 평군술로 합동타격훈련으로부터 화력복무훈련에 이르는 군사훈련을 지도하시며 조국의 존토를 철용성같이 지키도록 하신 그이의 령도에 의해 인민군대는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군력은 반석같이 다져졌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리상이고 민족의 평명한 미래이다. 지난해에 이 나라의 인민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운명이 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위해 애국충정을 다했고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슴벅차게 체험했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이인위천리념의 구현이다. 지난해 한해동안 령도자의 모든 구상과 의도, 국가적관심과 조직들은 인민들의 복리향상으로 돌려졌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개신청년공원유회장, 평양동물원, 인민군장,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과 재부들마다에 령도자의 애국에인헌신의 자욱이 새겨졌다. 류경원 하나만 봐도 독특하면서도 현대적인 위생문화편의기지, 건축예술의 기념비적창조물, 공공건설의 본보기의 하나로 건설하도록 하신 그이의 인민사랑의 로고와 보살핌이 구석구석 깃들어

있다. 룡라인민유원지, 창전거리, 통일거리운동센터 등 하나하나가 령도자의 인민중시의 정치, 국가적시책에 의해 인민들에게 차해지는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인것이다. 온 한해 령도자의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애국충정의 발걸음을 맞추며 사람들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에 민족의 존엄과 행복, 번영이 있다는것을 현실과 생활로 체험했으며 인민의 부귀영화가 먼 래일의 일이 아니라라는것을 가슴부터 느끼었다. 나라의 분별로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통일의 절박성과 민족적사명감을 언명하시고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북돋아주신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에서 사람들은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띠관했다.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진

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파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신 그이이시다. 비범한 예지와 출중한 정치실력, 숭고한 덕망을 체현하시고 정사를 이끄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온 민족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신 크나큰 행운과 긍지를 가슴뜨겁게 새기게 되었다. 그이의 위인상에 대해 남조선인민들과 《경향신문》, 《통일뉴스》,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은 《인자한 모습》, 《친숙하게 다가가는 정치》, 《인민지향적인 현지지도》,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계승》, 《나의 조국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가 계신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인민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고 김정일국방위원장처럼 인민이 좋아하는 일만을 한다.》고 존경과 호모를 터놓았다. 불굴의 기상과 정신력으로 온

갖 도전들을 이겨내며 강성부흥을 이룩하는 조선인민을 이끄는 세계적인 젊은 령도자의 위인상을 보았다. 미국 CNN방송, 잡지 《타임》, 《포브즈》, 중국중앙TV방송, 《환구시보》, 《베이징일보》, 로씨야 이따르-파스트통신을 비롯한 세계언론들은 《세계 10대명인》, 《2012년의 명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조선에서 김정은시대가 닦을 올렸다》, 《현대정치가, 현대군사가의 귀감》, 《세계적인 수준을 돌파해나가는 리상형의 지도자》, 《해성처럼 솟아오른 젊은 령도자》로 대서특필했다. 김정은원수님은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고 밝은 미래이다. 그이의 거룩한 모습이 새해의 찬란한 해돋이로 안겨온다. 더 큰 승리와 사변들로 아로새겨질 흥하는 공화국의 2013년이 눈부신 해발속에 비껴온다. 새해가 새로운 비약의 해, 부흥의 해가 되리라는것을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사기자 리 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미국잡지가 《2012년의 명인》으로 모시었다

지난해 말 미국잡지 《타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2012년의 명인》으로 모시었다. 1927년부터 년년이 《한해의 명인》들을 지칭, 발표해오고있는 잡지는 2012년에도 이름있는 정치가, 기업가, 예술인, 체육인, 방송인 등 각계층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명인선정 온라인투표를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560만여명이 투표함으로써 그이께서 제일 많은 지지표를 받으셨다. 잡지는 투표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올해(2012년)의 첫째가는 명인으로 선정되셨다. 김정은 령도자께서는 지난해 말 김정일령도자께서 서거하신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위에 추대되셨다. 그이께서는 지난 1년간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으셨다. 이미 2012년 2월 그이의 사진이 《타임》잡지표지에 모셔진바 있다. 한편 미국잡지 《포브즈》는 2012년 12월 8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들》이라는 표제 밑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그이의 락력을 소개하였다. 본사기자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두 번째 년를 새기며 주제 102(2013)년이 밝아왔다. 새해의 첫 아침을 맞고보니 지난해 정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어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해주시던 환하신 모습이 눈앞에 어려온다. 그날 조국을 지켜

리는데 있어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달음으로 찾아왔다고, 105땅크사단은 명절만 불리보아도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원수님이시었다.

거룩한 자욱 되새겨보며

선 군위병들을 만나신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밑에 무적의 땅크무력으로 강화발전된 부대의 로정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사단을 쇄소리가 나는 싸움군들의 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오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

리는데 어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달음으로 찾아왔다고, 105땅크사단은 명절만 불리보아도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느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원수님이시었다. 그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인 험준한 철령을 무려 18차례나 넘나드시며, 152굽이 오성산의 칼벼랑길로 야전차를 밀며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고 룡랑사

한해의 마지막날 저녁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리경찬선생의 가정을 찾았다. 크고 아담한 집안에 들어서니 온 가족이 모여앉아 정성다해 꽃다발을 엮고있었다. 언제나 나라와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장군님이시어서 새해를 맞을 때나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친어버니를 먼저 찾은 자식마냥 어버이장군님을 목메어 부른다는 리경찬선생. 새해의 첫날아침 온 가족이 꽃다발을 정히 안고 만수대인덕을 찾아 두분의 동상에 삼가 인사

나운 과도를 헤치고 섬초소를 시찰하시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심신을 강그리 불태우신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한생을 바치시며 지켜오신 조국, 사랑하는 인민의 안녕을 위해 원수님께서는 새해의 첫 아침 땅크사단을 찾으시는데 이어 온 한해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어 선군장정을 이어오시었다. 새해의 첫아침부터 온 한해 조국수호의 천만리를 이어오신 원수님의 선군장정이 있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지고 강성부흥을 앞당기는 거대한 전변과 기적이 조선의 2012년을 빛나게 장식하였으니 새해 2013년은 더 큰 기적과 승리의 전변을 아로새기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방문기 새해의 꽃다발

를 올리겠다고 말하는 선생의 주름진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있었다. 해가 갈수록 더해만가는 그리움의 정이 진하게 어려 있는 꽃다발들을 바라보니 생각이 깊어졌다. 꽃, 예로부터 기쁨과 행복, 축하의 의미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꽃이었다. 하기에 우리 선조들은 새해를 맞을 때나 뜻깊은 계기들마다 축하와 존경의 표시로 부모님들과 스승, 친척, 친우들에게 꽃을 안겨주곤 하였다.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꽃잎, 그윽한 향기, 싱싱한 푸른 잎새, 꽃의 이런 특성으로부터 사람들속에서는 누군가에게 꽃을 바치거나 준다는것은 자신의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을 바치는 의미로 통해왔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 그리움을 꽃송이마다에 담아가는 리경찬선생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굳어지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유대감 감동깊게 엿볼수 있었다. 그런 우리의 눈앞에는 어려웠다. 2013년 새해

은 맹세어린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안고 만수대인덕으로 물결쳐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온 나라, 온 강산에 굽어치는 일실단결의 꽃바다. 본사기자 흥범식



우리 재중동포들은 존엄높은 위성보유국의 해외공민된 기쁨과 자랑을 안고 새해를 맞이했다. 세계적으로 실용위성을 자체로 제작하고 발사까지

위성보유국의 해외공민된 금지안고

하는 나라는 열손가락안팎이다. 지난해 12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과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도 기뻐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었다. 중국사람들도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축하해주었다. 그때 나의 가슴속에는 우리 조국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후둑게 차올

랐다. 조국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을 온정어린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며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힘있게 불리 일으켜주신 원수님, 공화국에 대한 재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었기에 지난해에 특기할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재중조선인정년련협회 위원장 김영녀

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것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재부들을 끝없이 늘어갈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재중조선인정년조직을 책임진 일군의 한사람으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국의 힘찬 진군에 발걸음을 맞추며 통일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겠다는것을 다짐한다. 재중조선인정년련협회 위원장 김영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자

북남공동선언은 변함없는 조국통일의 기치

조선반도에 드리운 대결과 전쟁위협을 가시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것은 북과 남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겨레의 지향과 념원으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평화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자면 북남공동선언들이 철저히 고수, 리행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오늘날도 깨일도 변함없는 조국통일의 기치이다.

조국의 통일을 앞당겨오자면 우리 겨레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민족통일운동의 출발점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

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 위업이다.

자주적운명개척의 힘은 민족의 단결에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적단합의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에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기와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피줄, 하나의 민족으로서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단결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6.15공동선언은 불신과 반목, 대결의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룩된 북남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북과 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파시하였다. 군사분계선철조망을 끊어버리며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화가 도도히 끊이치고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것과 같은 사변도 일어나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 력사적인 선언들에 의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는 일대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었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북과 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파시하였다. 군사분계선철조망을 끊어버리며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화가 도도히 끊이치고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것과 같은 사변도 일어나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그런데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당국의 집권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으며 북남관계과국의 5년을 이어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사가 되풀이된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은커녕 북과 남의 온 겨레에게 화박에 가져올것이 없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려면 마땅히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을 위한 길에 팔걸고 나서야 한다. 지난 시기의 낡은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민족적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각계층 단체와 인사들의 통일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일시적인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거족적진군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최광혁

유한관철, 그 성스러운 사명감앞에서

지금도 나의 귀견에는 지난해 12월 12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를 온 세상에 소리가 울리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의 구절구절이 생생히 울리고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운반로케트 《은하-3》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온 나라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 이 열마나 성스럽고 위대한 시대의 찬가인가.

2012년도 다 가는 12월의 엄혹한 추위속에서 현 대과학기술과 경제의 최첨단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을 자기 궤도에 성과적으로 올려놓은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

이다. 운반로케트의 2계단을 국제해상통로와 주민지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위성발에 있는 나라들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우정 굴곡을 만들어 자리길을 선회시키는 첨단기술로 위성을 우주에 띄운 그들의 가슴속에 불타고있던 념원은 오직 하나였다.

《과학기술위성 《광명성-3》호의 성공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이다. 2012년 이해를 넘기기 전에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자.》

이들의 숭고한 정신 세계는 진정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유훈도 이런 애국의 마음, 애국의 정신으로 실현해나가야 함을 시사해주고있다.

조국통일은 조국과 겨레를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었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겨레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불분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셨

으며 후세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유훈이고 민족의 최대념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서는 북과 남, 해외의 그 어디에 살건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

민족분열과 국토량단이라는 가슴아픈 비극의 력사가 어언 70년을 가까이 하고있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의 력사가 무한정 지속되는것을 막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어들어 기어 관철하고야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이께서 한평생 바라시고 애쓰신 조국통일을 어언 실현해나가야 함을 시사해주고있다.

분열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손으로, 이것이 장군님의 령전앞에서 새해의 결의를 다지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굳게 새겨진 통일실천의 각오이다.

김진혁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외세와 공조할것이 아니라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조국통일이 장장 60여년세월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도 주요하게는 외세의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책동때문이다.

사람이 제정신을 잃고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이 우리 민족의 력사가 남김 교훈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민족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한 법이다. 망국과 분별로 이어진 20세기의 민족사는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영구분열의 길이라는것을 철리로 새겨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오는 과정에 민족의 미래는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자주, 민족공조에 있으며 굳건한 민족공조를 실현할 때에만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북남관계의 발전도,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조의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로 모독하고 외세의 반공화국적대시압살정책에 적극 추종해온것이 그 실례이다. 남조선의 《실용정부》가 《대북정책》으로 내건 《비핵, 개방, 3000》이라는것자체가 공

조책동으로 6.15이후 종계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게 되었다.

외세와 야합하여 극도의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내고 6.15의 통일환희를 전쟁공포증으로 바꾸게 한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반민족적범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동족보다 외세를 더 믿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 외세와 공조하게 되면 민족내부에 불신과 갈등밖에 생길게 없고 그렇게 되면 언제가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룰수 없다.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울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에 민족의 화해도 있고 평화와 통일도 있다. 본사기자 최명제

외세공조는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대결공조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집권초기부터 미국, 일본과의 《관계복원》과 《동맹강화》를 운운하면서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에만 매달려왔다. 《핵을 이고 통일로 나갈수 없고 남북관계도 힘들다.》느니, 《민족주의로는 남북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느니 하면서

화국의 무장해제와 내부의 화해를 노린 불순한 대결정책으로서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선언이라는것은 오늘의 처참한 북남관계현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국제무대에서까지 미일상정과 야합하여 공화국의 사상과 체제를 약탈하게

수당국은 저들의 함성침몰사건을 공화국과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이 사건을 반공화국고립압살과 외세와의 공조강화를 위한 중요한 구실로 삼았다. 이와 함께 동서해상에서 미국과 함께 대규모 련합해상훈련을 발발적으로 벌이며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남조선보수당국의 친미사대대국정책, 외세와의 공

통일의 마치고 소리를 더욱 우렁차게

새해를 맞는 우리 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은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갈 애국의 열기로 끓고있다.

지난 시기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련대, 련합을 강화하고 뜻과 마음을 합쳐가며 조국통일운동에 앞장서왔다.

남조선의 친미보수당국의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이 비록 어려움들을 겪고있지만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

증된 북남공동선언들을 끝까지 리행하여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오려는 북과 남의 로동자들의 의지는 더욱 굳세여졌다.

이 지구상에 유일한 분열민족으로 남아있는 치욕, 그것을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는것이 온 겨레, 북남로동자들의 의지라고 본다.

민족의 단결에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루는 길이 있다. 우리 북남로동자들이 불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김동운

새 해 를 축 하 합 니 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해외동포 여러분의 통일애국사업에서의 성과와 가정의 행복을 바랍니다.

통일신보편집국

주제 102(2013)년 1월 1일

민족의 존엄이 우주에 나래치는 환희의 강산에 새해가 왔다. 이 아침, 경이로운 사변들로 2012년을 장식한 이 나라 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신심과 락관, 새로운 결의가 차넘치고있다.

지난해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는 자는 공동사설의 구호를 받들고 애국의 열의를 다해 민족사에 특기할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이 개관되고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백두산위인들의 동상과 립상화,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지는 등 수령영생위업의 숭엄한 화폭들이 현이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파

회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보여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아버지수령님탄생 100돐경축행사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광풍이 불어도, 지구가 깨어진대도 태양의 력사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준 공화국의 2012년이다.

선군조국의 새로운 천리

더 높이, 더 빨리

마속도를 창조하며 력사의 기념비로 자랑높이 솟아오른 회천발전소, 동해의 날바다를 걸들며 거창하게 일떠선 단천항, 대계도간석지와 남주-평양바다물수송관, 만수대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창천거리와 통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다.

그 거대한 흐름속에서

《광명성-3》호 2호기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시위하며 우주에 힘차게 날아올랐다.

어제 경제건설성과뿐이랴.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확실하듯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며 청년절경축행사가 열렸고 훌륭한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들을 축하하는 어

머니날이 제정되고 어머니대회도 마련되었다. 모란봉악단의 파격적인 공연과 제30차 런던올림픽경기에서 거둔 성과도 문화강국, 체육강국으로 발전하는 공화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강성국가의 명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두가 신심드높이 기세차게 전진해온 2012년이었다.

그 진두에는 겨레가 받

들어올린 또 한분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안아주시어 2012년의 기적을 안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축하하는 연회를 마련하시고 그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백두산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용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합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인민은 사상으로 억척불변하고 과학기술로 강대하며 당의 두리에 천금만겁으로 뭉친 당당한 모습으로 2013년의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희망과 락관에 넘쳐진진하는 공화국인민들을 축하하듯 새해의 아침에는 밝게 비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새 해 의 발 력 들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히 새해의 달력으로 모아진다.

새해에는 어떤 달력들이 나오게 될가.

최근 공화국의 여러 출판사들에서는 해내의 독자들과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여 2013년의 달력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이번에 평양출판사에서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조선》이라는 주제로 예로부터 우리 여성들이 즐겨입은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치마저고리들을 소개한 달력을 출판하였다. 겹치고리, 누비지고리, 삼화장저고리들과 화려한 결혼식옷, 명절옷, 일상옷, 어린이옷 등 다양한 조선치마저고리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자랑날

은 우리의 민족옷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해준다.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한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노을비긴 삼지연, 겨울의 모란봉의 현무문, 백두산기슭의 천군바위, 산천의 아침, 동해의 명승 총서정을 비롯하여 산 좋고 물 맑은 조국강산의 수려한 절승경개들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는 달력도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에서는 새해의 달력에 맛과 냄새, 색깔이 독특하고 약리

적가치가 높아 예로부터 장수보약로리로 이름난 조선로리들을 소개하였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슬슬 도는 신선로와 고기쟁반국수, 햇닭찜, 종합회, 통배추김치, 타조고기보쌈, 잉어찜, 왕새우찜, 깨설기, 메기탕 등 일상음식, 의례음식, 명절음식들은 하나하나가 다 특색있다.

이밖에 조선예술영화 《들꽃소녀》, 《내가 사는 가정》, 《여기는 내 고향》, TV연속극 《계월향》, 《자기를 바치라》, 《사랑의 권리》를 비롯한

여 최근에 창작방영된 조선예술영화, TV연속극들 가운데서 인기있는 장면들을 펼쳐보인 달력(문학예술출판사)도 많은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무릇 달력에는 새해의 지향과 념원, 시대적추세, 해일상음식, 의례음식, 명절음식들은 하나하나가 다 특색있다.

한장두장 새해의 달력을 번져갈 때마다 독자들은 민족의 넋이 살아 숨쉬는 공화국의 발전모습을 뚜렷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제기차기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지고있는 전통적인 민속놀이로서 어린이들은 물론 청년들까지도 즐기던 남자들의 겨울철놀이의 하나였다.

제기는 만들기가 간편하고 크기가 작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혼자서는 물론 여러명이 함께 즐겨 놀수 있는 것으로 하여 세나라시기부터 널리 장려되었다고 한다.

제기차기는 고려시기 우리 선조들의 가장 보편적인

놀이였던 《축국》이라는 경기놀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작은 공에 새의 깃털이나 종이, 명주천으로 띠를 길게 늘어 차기놀이를 하면서부터 제기차기로 굳어졌다고 한다.

이웃나라의 옛 문헌인 《구당서》에 고려사람들이 《축국》을 잘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

와 리조말기의 《동국세시기》에는 《장년과 소년들이 축국놀이를 하는데 공이 탄환만 하여 우에는 평평을 꿸었다. 두사람이 상대하여 서로 마주 차는데 떨어뜨리지 않는것이 기술이다.》라고 서술되어있다.

제기모양도 여러가지였다고 한다. 제기에 종이나 비단으로 실오리모양을 만들거나 새깃털을 붙이는것은 발로 차 올린 제기가 천천히 떨어질 때에 잘 맞도록 하기 위한것이었다고 한다.

제기차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다. 한번 차고 땅을 딛고 또 차고 땅을 딛고 하는것을 《땅강아지》, 《땅지기》, 두발로 번갈아가며 차는것을 《향발지기》, 땅을 딛지 않고 계속 차는것을 《들지기》, 키를 넘게 올려 차는것을 《키지기》, 차서 머리에 었었다가 떨어뜨려 다시 차는것을 《연지기》라고 하였다고 한다.

여러 방법중 어느 한가지만을 미리 정하여 차기도 하였으며 세가지 방식으로 차는것을 《삼세가지》라고 하였다고 한다.

진풍에서는 《종들이기》

라 하여 이긴 사람의 서너 걸음앞에서 그의 발앞에 제기를 걸고주면 이긴 사람이 이것을 멀리 차보내는데 진쪽에서 제기를 잡거나 차는 사람이 헛발질을 하면 《종들이기》에서 벗어난다고 한다.

제기차기는 어린이들의 발

겨울철민속놀이 제기차기



과 다리를 단련시키는데 특별히 좋아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되었다. 잘 차는 사람은 한가지만으로 수백까지 차기도 하는데 차올린 제기를 머리우나 어깨우에 올려 놓고 한참씩 다리를 쉬거나 발안쪽과 바깥쪽은 물론이고 발등과 발뒤축, 무릎으로 차는 등의 재주도 부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주제 102 (2013) 년 새해우표가 나왔다

주제 102(2013)년 새해를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우표를 발행하였다.

우표는 인민의 리상거리로 우뚝 솟은 창천거리의 설풍경을 통하여 하늘에는 위성이 날고 땅우에는 무릉도원이 펼쳐지는 공화국의 전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표에는 새해 2013년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더 큰 승리를 안아올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이와 함께 우표에는 《주제102(2013)년》, 《새해 이 새겨져있다.》 라는 글말

본사기자

전골은 고기와 남새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재료를 냄비에 넣고 거기에 간을 한 육수를 부어 끓인것이다.

전골은 남비를 붙여 올려놓고 조리하면서 먹는 죽석로리의 하나로서 여럿이 함께 먹기때문에 친밀감을 도모한다. 원래 전골을 먹는것은 뼈를 끓인다는 뜻인데 흔히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놓은 음식을 다시 끓인 음식이라는 뜻으로 리해하여왔다.

전골음식이 생겨나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고려군사들이 며칠째 후방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적을 반대하여 치열한 전투를 계속할 때의 일이다.

군량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라 몇몇 군사들에게 전투장으로 떠날 때 백성들이

죽석로리로 싸우었던 음식이 얼마간 남아있을뿐이었을 때 그걸로 먹고 살아야 했다. 그대로 먹을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전투에서 쓰는 전립(지금의 철갑모와 같은 것)에 음식을 모아넣고 끓이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나는 구수한 냄새에 배고픔을 참지 못한 군사들이 익는죽을 골라먹었다. 그 맛이 하도 별맛이어서 그후에도 그런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먹었다.

그래로부터 이 음식의 이름을 전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리조시기의 《시의방》에 전골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는것으로 보아 그것이 오래전부터 이름난 민족로리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본사기자